

키워드 : 언어행위, 사회적 활동, 언어행위의 기본 요소, 사회언어학, 경어법의 등급, 호칭, 평칭, 경칭, 겸양칭, 높임의 정도, 인칭

1. 사회언어학적 양상

언어가 사유의 과정이나 도구 혹은 독백의 형태로도 쓰이기는 하지만, 언어행위는 기본적으로 사회적 활동이다. 왜냐하면 언어는 본질적으로 사회적인 장면에서 화자와 청자 사이의 대화의 형태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언어행위라고 하면 일단 사회적인 상황을 전제로 해야 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언어행위가 성립되기 위한 기본적인 요소로는 화자, 청자, 제 3자, 특정언어, 시간, 장소를 들 수가 있다. 이들 여섯 가지 요소들이 관련되어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사회언어학의 연구대상이 된다.

화자와 청자 그리고 제3자가 관련된 경어법의 문제가 그렇고, 그들이 속한 사회계층에 따른 언어사용의 문제가 그러하며, 지역적인 거리의 차이에서 오는 방언의 문제나, 특정시간이나 장소에 따른 격식체와 비격식체의 사용 문제 또한 그렇다.

그 밖에도 언어의 화용적(話用的) 양상이나 수용성(acceptability) 등도 사회언어학의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으며, 발화의 상황적인 전환(switching) 등도 관심의 대상이 될 것이다. 사회언어학을 연구한다고 할 경우에 전제가 되는 사회계층의 구분부터가 어려운 문제로 제기될 수 있겠지만, 사회방언적인 차이는 어휘 이외에도 발음, 억양, 문법의 차이는 물론 의미범주화의 차이도 보여주고 있어 보다 많은 연구의 여지가 열려있는 분야이기도 하다.

또 이 현상들은 언어간에도 그 언어사회가 다름에 따라 달리 나타날 수 있다. 가령 우리말이 복수를 나타낼 때 '우리'라는 대명사를 쓰지만 관용적으로 그 의미가 영어의 'we, our, us'에 꼭 들어 맞게만 쓰이는 것은 아니다. '우리 남편, 우리 집사람'이라고 해도 결코 공유하자는 뜻은 없고 그냥 관용적으로 '우리'라는 말이 단수까지 의미하는 것이다. '내 남편, 내 집사람'이라고 못박아 말하는 투는 자연스럽지 못하다는 어감을 모두 알기 때문에 특별한 문맥이 아니면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것이다. 대개 가정이나 가족을 가리킬 때 '우리 집, 우리 아버지, 우리 마누라'라 하여 단수의 '내, 나의'를 피하며, '내 집'이라 할 경우는 가정보다는 건물을 가리키는 뜻이 강해진다. '우리 나라'에 대하여 영어식이면 '내 나라(my country)'라고 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관습은 다. 우리말의 사회언어학적 특성이 자유한 결과다.

2. 경 어 법

한국어는 위계질서가 엄격히 반영되는 언어다. 다시 말하면 경어법이 엄격하게 구분되는 언어다. 그뿐만 아니라 한국어의 경어법은 무척 복잡하게 세분화되어 있다. 아마 경어법이 한국어에서보다 더 세분된 언어는 이 세상에 달리 없을 것이다. 일본어가 거의 비슷한 수준일 뿐이고, 세분된 경어법으로 유명한 자바어(Javanese)도 한국어보다는 훨씬 단순한 수준으로 보인다.

2. 1. 대명사

“Is this your book?”을 한국어로 번역하여 보면 ‘your’에 해당하는 부분이 다음 예문(1)에서처럼 여러 개로 갈림을 볼 수 있다.

(1) a. 이거(이것) 너-의 책-이니?

b. 이거 자네 책-인가?

c. 이거 당신 책-이오?

d. 이거 댁-의 책-입니까?

e. 이거 어르신-의 책-입니까?

즉, 영어의 ‘you’가 상대방, 즉 청자의 신분에 따라 ‘너, 자네, 당신, 댁, 어르신’ 등으로 세분되어 있는 것이다. 이 중 ‘너’가 친구나 아들 딸이나 어린 아이들에게 쓰는 가장 낮은 등급의 대명사면 그 다음 차례로 한 단계씩 상대방을 높여 부르는 대명사다.

먼저 ‘자네’는 이 말을 쓰는 사람이 권위를 가지고 말하는 분위기가 곁들여지는 특성이 있고, 그 때문에 자칫 상대방의 비위를 거슬릴 수 있는 것이 ‘자네’라는 대명사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은 부부 사이에서 상호적으로 쓰이는 대표적 대명사다. 그리고 광고문이나 책 제목과

같은 글에서는 불특정 독자를 꽤 자유롭게 ‘당신’이라 부를 수 있다.

(2) a. 당신의 고민을 털어 드립니다. (신문의 광고문)

b. 당신의 우리말 실력은? (책 제목)

그러나 남들과의 일상 대화에서 ‘당신’을 쓰기는 무척 조심스럽다. ‘당신’이 ‘너’나 ‘자네’보다 상위 등급의 대명사인 것만은 분명하지만 그 높임의 정도가 그리 큰 것은 아니어서 그 호칭을 듣는 사람으로서는 충분히 대우를 받았다는 느낌을 받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따라서 ‘당신’이라는 호칭이 오히려 불쾌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3a)와 같은 시비가 실제로 자주 일고, 또 싸움판에서 (3b,c)와 같은, 그리 공손하지 못한 호칭으로서 ‘당신’이 자주 쓰인다.

(3) a. 누구더러 ‘당신’이라는 거야?

b. 당신 같은 사람은 처음 보겠어.

c. 당신이 뭔데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일상 대화에서 ‘당신’이 쓰이는 범위는 그만큼 한정되어 있는 셈이다. 경관이 취조할 때와 같은 자면 들에서는 비범히 쓰이겠지만 부부 사이의 호칭 이외에는 아는 사이에서도 낯설

같은 양한 양이라는 단어가 쓰였지만 각각 각각의 모양이 다른 각각이라는 뜻인 사람 사이에서든 ‘당신’은 여간해서는 쓰기 어려운 대명사라 할 수 있다.

‘택’이나 ‘어르신’도 용도가 상당히 제약되어 있는 대명사들이다. ‘어르신’은 친면이 있거나 없거나 극존칭을 쓸 상대이면 쓰는 데 반해 ‘택’은 친면이 없는 사람에게만 쓴다. 따라서 ‘당신’보다는 더 높은 등급이어서 ‘당신’이라는 호칭에서 유발되는 분란을 일으킬 염려는 없으나 (5)와 같은 문장이 쓰이는 상황은 극히 한정되어 있다.

(4) 여기가 어르신 의 자리입니다.

(5) 이 개가 택의 개인가요?

한국어는 전체적으로 대명사의 쓰임이 활발하지 못함을 그 한 특징으로 한다. 3인칭의 경우 앞 문장의 명사를 대명사로 받아야 하는 규칙이 한국어에는 없다. 다음 예문 (6)에서 '누나'는 계속 '누나'라는 명사로 반복될 뿐 그것이 대명사화하는 일이 없다.

(6) 누나는 부산에서 태어났다. 누나가 고향인 부산을 떠난 것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서였다. 그 후 누나는 다시는 부산에 가지 못하였다. 그러나 고향을 향한 누나의 애정은 한시도 식은 적이 없다.

영어라면 당연히 대명사로 표현될 자리에 명사가 쓰이는 일이 한국어에서는 매우 일반화되어 있다. 요약하면 한국어는 2인칭 대명사에서 이미 경어법이 복잡하게 세분된 모습을 드러낸다. 겨우 평칭과 경칭으로 양분하는 단순한 체계가 아니고 대개 5등급 정도의 세분되는 체계를 이룬다.

한국어는 2인칭 대명사 이외의 대명사에서도 경어법의 등급이 있다. 1인칭에는 평칭 '나'이외에 겸양칭 '저'가 있다. 존대를 나타내야 할 청자 앞에서는 '나' 대신 '저'를 써야 하는 것이다. 복수형에서도 '우리'와 '저희'의 대립이 있다.

(7) a. 누나, 나도 가겠어.

b. 아버지, 저도 가겠어요.

(8) a. 누나, 우리가 이겼어.

b. 선생님, 저희들은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3인칭에서도 평칭 ‘그’를 기준으로 한 단계씩 높이는 ‘그이’와 ‘그분’이 있다. 근칭(近稱)의 ‘이이, 이분’ 및 원칭(遠稱)의 ‘저이, 저분’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이들에서는 평칭 ‘이’와 ‘저’가 독립적으로 쓰이지 않는다. ‘그이’는 주로 부인이 남편을 가리킬 때 쓰이고 그 이외에는 별로 쓰이지 않는다. 어쨌든 상대방을 약간 높이는 구실을 한다. ‘그분’은 ‘그이’보다는 대상을 더 높이는 구실을 하며 그 쓰임의 범위도 ‘그이’보다 넓다. 그러나 앞에서 지적한 한국어 대명사의 활발치 못한 특성이 여기에도 적용되어 선행 명사를 자유롭게 받지 못하는 한계는 있다. 가령 어떤 문장에서 선행하는 명사 ‘어머님’을 ‘그분’으로 받는 일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옛날 사진을 놓고 (9)처럼 말할 수는 있는데 일상 대화에서 가까운 사람을 ‘그분’으로 지칭하는 일은 아주 드물다.

(9) a. 그분은 우리 어머니셔.

b. 그분은 너희 5대조 할아버지시다.

2. 2. 호 칭

친척은 아니나 지면(知面)이 있고 이름(김민호)도 아는, 그리고 어떤 회사에서 과장 직을 맡고 있는 나자를 청자(addresssee)로 하고 그 호칭이 ‘Tom, where are you going?’의 Tom

받고 있던 편지를 명사 (addressee)로 쓰고, 그 보충어 Tom, where are you going: 의 Tom
자리에 쓰인다고 가정하여 등급을 매긴다면 한국어의 호칭은 대개 다음과 같은 14개 등급
정도로 나누게 될 것이다.

- (1) ① 과장님 ② 김 과장님 ③ 김민호 씨 ④ 민호 씨 ⑤ 민호 형

⑥ 김 과장 ⑦ 김 씨 ⑧ 김 형 ⑨ 김 군 ⑩ 김민호 군

⑪ 민호 군 ⑫ 김민호 ⑬ 민호 ⑭ 민호야

위에서 우리는 한국어의 호칭이 경어법 등급에서 대개 14 단계가 있음을 보았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한국인은 더 복잡한 세계에서 살고 있다. 한국어는 친족명칭도 세분화되어 있는데 ‘김과장’이 자기 가족이거나 친척이라면 거기에 맞추어 여러 가지 호칭이 새로 등장하게 될 것이다. 영어에서라면 uncle 하나로 부를 것을 상대에 따라 누구는 ‘삼촌’이라 부를 것이며, 누구는 ‘작은아버지’, 누구는 ‘큰아버지’, 누구는 ‘당숙’ 등으로 달리 부를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단순히 ‘아저씨’라 부르기도 하고 ‘고모부, 이모부’라 부르기도 할 것이며, 나아가 ‘외삼촌’이라 부르기도 할 것이다.

1. 사회언어학적 요인 때문에 나타나는 한국어의 독특한 표현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2. 한국어의 인칭 대명사는 경어법에 따라 어떻게 달라집니까?
3. 한국어의 호칭은 경어법에 따라 어떻게 달라집니까?

